

##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4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일시 : 2015.03.18(수), 10:00 ~

장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민주정책포럼 시즌 II] 명사 초청 강연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취지 및 목적**

-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습의 장 마련
- 세계 정치·경제의 미래 변화 전망, 한국 사회의 진단과 혁신방안 논의

□ **포럼 개요**

- 일 정 : 2015. 02. 25(수)~03. 18(수), 오전 10시~12시(총 4회)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210호)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 참 석 : 당 지도부,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연구원 등

□ **프로그램**

일시	강연 주제 및 연사	주요 저서
02. 25(수) 10:00~12:00	①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전영수(한양대 국제대학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인구충격의 미래한국 (2014.12) 장수대국의 청년보고서 (2012.9)
03. 04(수) 10:00~12:00	②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박형준(국회사무총장)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공진국가 구상 (2014.12)
03. 11(수) 10:00~12:00	③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대한민국 - 김대식(카이스트 정보과학기술대학 전기 및 전자과 교수)	빅퀘스천 - 우리시대 31가지 위대한 질문 (2014.12)
03. 18(수) 10:00~12:00	④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2014.6) 다시 미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2014.12)

[민주정책포럼 시즌 Ⅱ] 달려오는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술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전략은’**

□ 개요

- 일 시 : 2015. 03. 18(수), 10:00 ~ 12:00
- 장 소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극동VIP빌딩 7층)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 강연 주제

-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 초청 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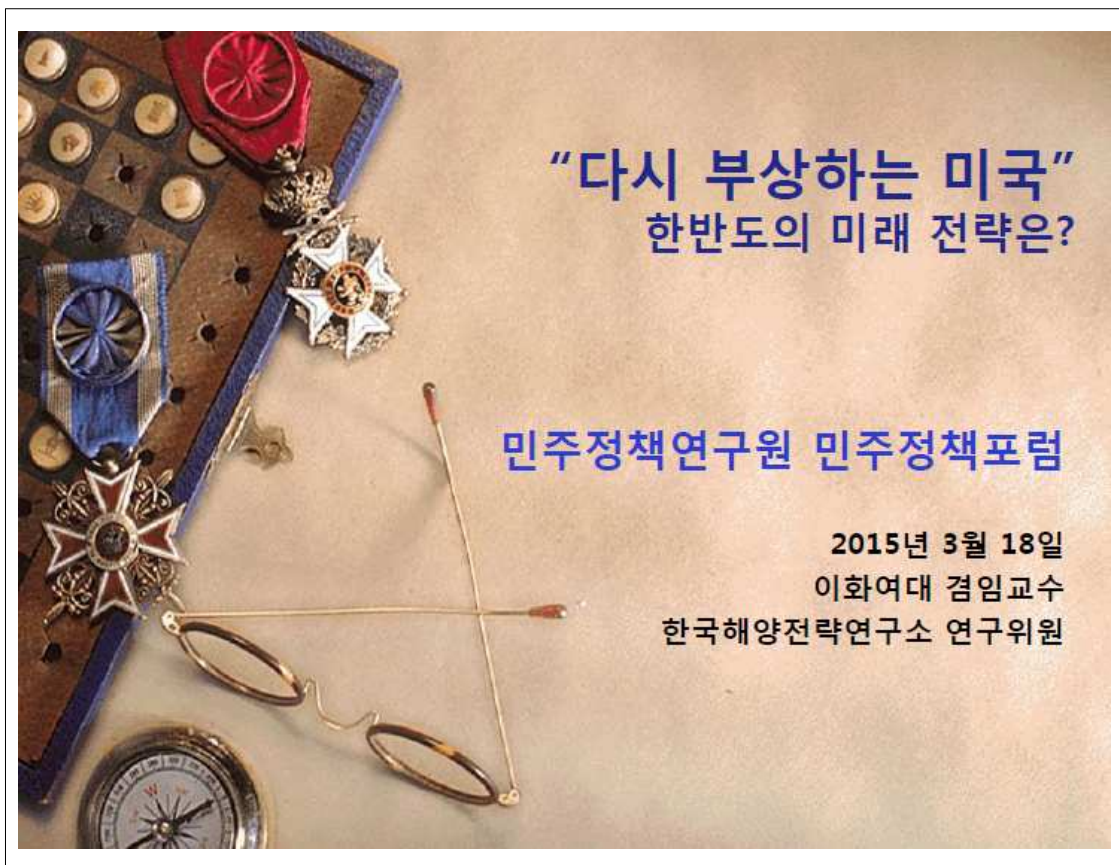
-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진행 순서

사 회 : 홍익표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위원)

시 간	내 용
10:00 ~ 10:05	개 회 : 강연 취지 및 연사 소개
10:05 ~ 10:1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10:10 ~ 10:15	축 사
10:15 ~ 11:15	강 연 :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11:15 ~ 11:55	자유토론
11:55 ~ 12:00	폐 회

※ 강연 자료는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idp.or.kr>)



#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포럼

2015년 3월 18일  
이화여대 겸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제정치 변동의 요인과 기준

1. 강대국의 부상 혹은 멸망 - 주로 전쟁을 통해  
평화적 구조변화 - 냉전종식  
Pax Romana, Pax Britannica, Pax Sinica  
  
Pax Americana
2. 국제정치의 작동원리 변경 -- 글로벌 자본주의  
민주주의적, 강압적,  
테러전쟁 시대,  
상이한 세계관을 가진 패권국의 출현

2



## 미국의 에너지 혁명: 국제정치 대변혁(大變革)의 전조(前兆)?

Foreign Policy 지 2012년 1-2 월 호 사설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Anti Terror Warfare “반 테러 전쟁”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

2012년 이후 : American Energy Boom  
“미국의 에너지 혁명”

2014년 중반 이후 국제 석유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했다. (2014년 초 120달러/배럴, 2015년 초 52달러/배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세계는 석유가 곧 고갈 될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나?

3





미국은 2014년 하루에 8537,0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2위. 그러나 미국은 2017년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부터는 석유를 수출해야 할 나라가 될 것이다. 2015년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예상을 앞질러 이미 천연가스, 석유 두 가지 모두 2014년도에 미국이 세계 1위가 되었다.(오바마 대통령의 2015 연두 연설 1월20일).

4



## Shale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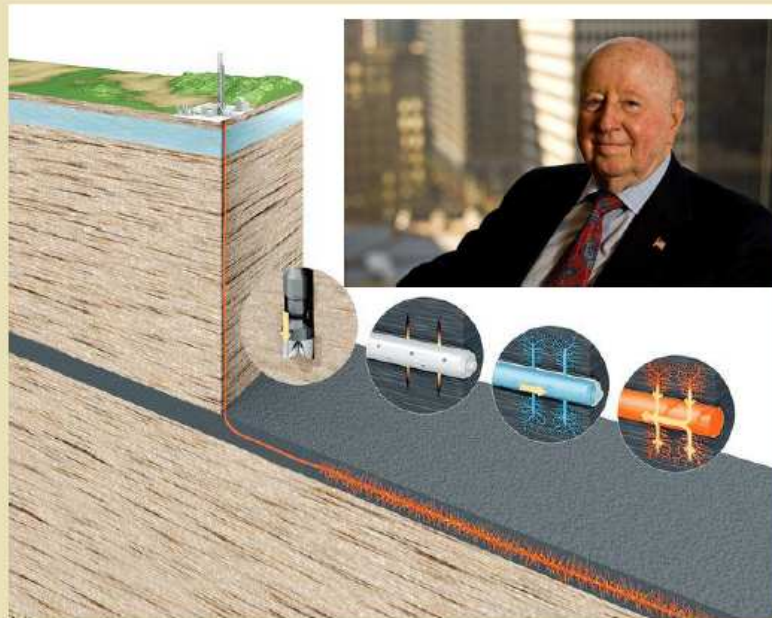
미국의 지질학자들은 미국 영토 내에 방대한 양의 채굴되지 않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Shale 바위 (혈암 頁岩 혹은 이판암 泥板岩 이라고도 함, Shale Rock)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표에서 약 3000m 지하에 있는 바위 층으로서 두께는 얇지만 넓이가 대단히 넓은 마치 구들장 모양의 큰 바위.

North Dakota 주의 Bakken Shale 은 그 넓이가 26000제곱 Km 에 이른다, 대한민국 영토의 1/4 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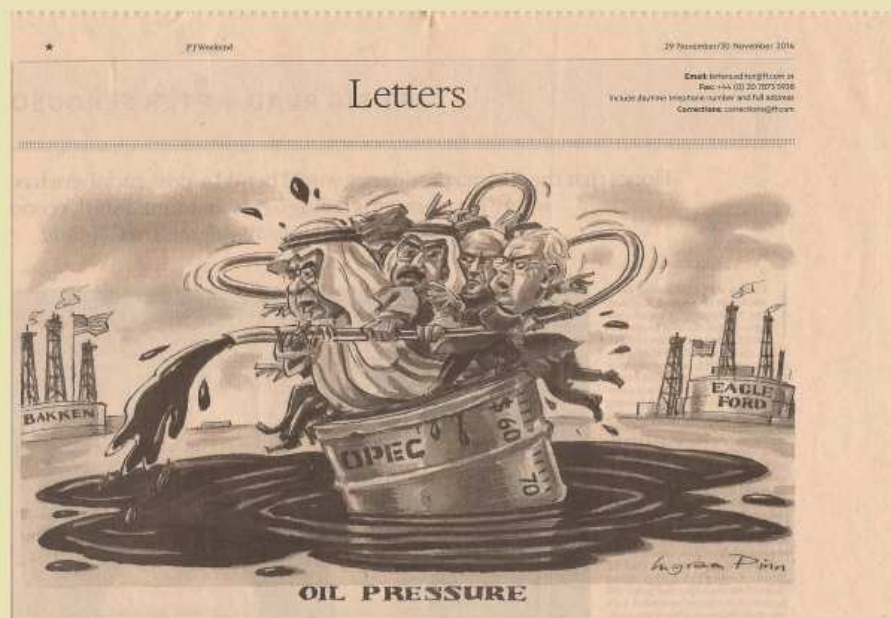
Shale Oil : Bakken(North Dakota), Eagle Ford (Texas)  
Shale Gas : Barnett Shale (Texas)

5



George Mitchell (1919-2013)  
He fracked until it paid off.  
Fracking 기법. Frack, Frackers

6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 (Shale Revolution) 때문에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Financial Times* November 28, 2014 Cartoon. Bakken과 Eagle Ford  
는 각각 North Dakota, Texas 의 Oil Shale 유정 이름.

7





미국의 **shale 오일**을 격파 하겠다고 사우디 가 무한정 증산을 단행,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오히려 다른 산유국을 죽이는 처지가 되고 있음을 묘사한 만화. Financial Times 2014년 11월 28일자. Cartoon.

미국의 Shale Oil 은 손익 분기점이 약 60달러 정도.  
사우디 석유는 손익 분기점이 30달러 정도  
러시아 석유는 손익 분기점이 100 달러  
베네수엘라 160 달러

그러나 석유는 경제학, 경영학의 대상이 아니다. **석유는 전략 물자.**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으로 국제원유 가격을 내리면 미국은 더욱 싼 석유를 사다 쓰면 그만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가격을 다시 올리면 미국은 Shale Oil 을 다시 채굴하면 될 일이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 가격을 계속 내릴 경우, 그것 때문에 곧바로 경제 파탄에 이를 러시아 등은 어떻게 행동할까?

사우디 아라비아 는 언제까지 헐값의 석유를 제공할 수 있을까?

8



베네주엘라	160 달러
이란	130 달러
이라크	114 달러
<b>가장 생산 단가가 비싼 미국의 셰일 오일</b>	<b>114 달러</b>
러시아	110 달러
캐나다 오일 샌드	100 달러
항공업계 2015년 150억 달러 이득을 위해서는	95달러
사우디아라비아	90달러
앙골라, 브라질, 노르웨이, 영국 심해 오일이 이득을 보기 위해	80달러
미국 셰일 오일 개발비 평균	<b>60달러</b>
미국 휘발유 값이 2달러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b>60 달러</b>
쿠웨이트 균형 재정	50 달러
영국 주유소 리터당 1파운드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45불
Breakdown price required for lowest-cost US Shale oil development	<b>\$ 40.00</b>

**Financial Times 8 November, 201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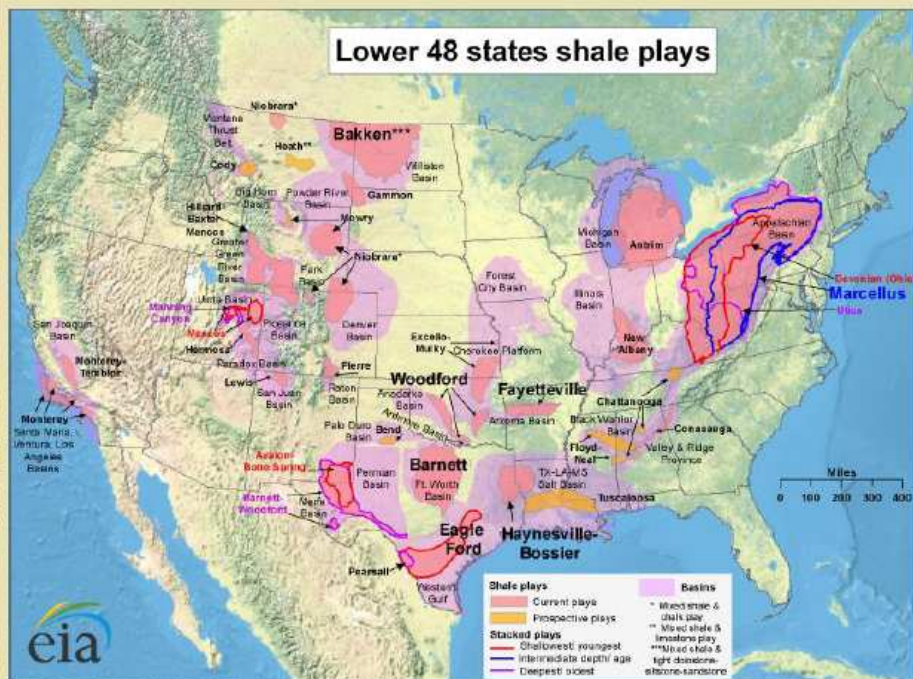




December 6th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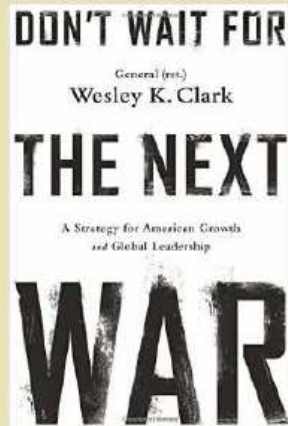
THE official charter of OPEC states that the group's goal is "the stabilisation of prices in international oil markets". It has not been doing a very good job. In June the price of a barrel of oil, then almost \$115, began to slide; it now stands close to \$70. This near-40% plunge is thanks partly to the sluggish world economy, which is consuming less oil than markets had anticipated, and partly to OPEC itself, which has produced more than markets expected.

10



Sourc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sed on data from various published studies. Updated May 9, 2011.

11



웨슬리 클라크 장군은 미국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항당한 사건 중에 **중국의 민주화** 혹은 **중국의 붕괴** 를 포함 시키고 있다. 그는 미국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Energy Independence**를 이룩함으로써 누구의 도전도 물리치고 지속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ublisher: Public Affairs (October 7, 2014)

12



웨슬리 클라크 장군의 분석에 의하면

오일세일: kerogen 이라고 알려진 이 석유는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 주의 세일이라 불리는 바위 층에 매장되어 있는 데, 현재 3개 주의 확인 된 매장량은 2조 배럴이며 이중 1조 배럴은 채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1970년대 석유가격이 급상승 했을 당시 시도 되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채굴 기술이 개발 되었다. 석유 가격이 배럴 당 100불 대를 유지하는 한 이곳의 석유는 궁극적으로 석유 시장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기술과 투자를 통해 이런 석유는 궁극적으로 개발 되어질 것이다. (W.Clark, p. 149. 2trillion barrel)

2013년 1849만 배럴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00,000,000,000 / 18490000 / 365 = 296.35$ 년 사용 가능. 300 년 치가 Wyoming, Utah, Colorado 등 3주에 있는 것이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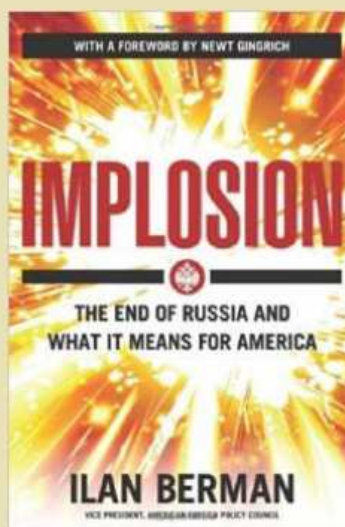




석유 가지고 장난치던 독재국가들은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러시아 등이 더 이상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못살게 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14



러시아가 미국과 새로운 냉전을 벌인다는 말이 있다.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다. 러시아는 사실 붕괴의 위기에 처한 나라다. 2013년 9월 16일 간행된 러시아 붕괴를 예측한 서적, 경제력이 이태리 수준인 러시아가 미국과 맞장 뜬다고??

15





미국의 석유생산량 증대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는 러시아이다.

미국의 셰일 오일은 미국의 석유 수입을 대폭 낮추었고, 그 결과 국제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국가재정을 유지하는 러시아는 결정타를 맞은 상황이 되었다.

2014년 11월 22일-28일자 The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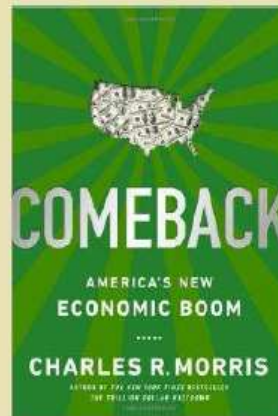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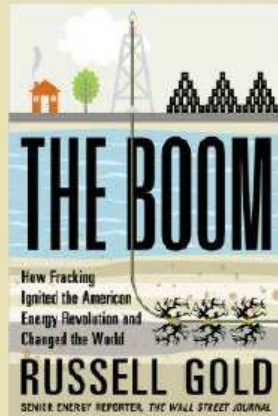
16



**U.S. military vehicles parading near Russia's border in Narva, Estonia on Feb. 24, 2015(Estonian Defense Forces)**  
The soldiers from the U.S. Army's Second Cavalry Regiment were taking part in a military parade to mark Estonia's Independence Day. Narva is a vulnerable border city separated by a river from Russia. It has often been cited as a potential target for the Kremlin if it wanted to escalate its conflict with the West onto NATO territory. 러시아 영토 수백 미터 앞에서 미국 장갑차가 달리고 있다.

17





미국 부활의  
결정적 요인

미국은 곧 세계  
1위의 산유국  
이 된다. !!

American Energy  
Boom

미국은 셰일 가스 개발 기술을 확보 함으로써 앞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개발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경제가 붐을 이루게 되었다. 2017년 미국은 석유를 자급 하게 될 것이며 2020년 미국은 석유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5년 무렵 부터 매년 5 % 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졌다. 최근 미국의 에너지 붐에 관한 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For gene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used its military might to keep oil flowing, fighting wars and patrolling sea lanes. Maybe this Era will now come to an end. By 2020, America could become the Largest global oil produc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4), p.33

18



## 미국 해군이 만약 세계의 바다를 더 이상 지키지 (순찰하지) 않게 된다면 ?

항해의 자유가 확보된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1945년 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세계사의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석유의 원활한 흐름 (미국으로 가는 석유길)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해군의 존재는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의 석유 길도( 이들은 석유수송로를 생명선 이라고 부른다) 지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이 세계의 해로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계의 바다는 다시 해적들이 들끓는 바다가 될 것이다.

세계의 바다는 1945년 이전, 즉 미국 해군이 세계의 바다를 지키기 이전, 결코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19



## The Navy Has Long History of Anti-Piracy Operations

Jefferson, one of the first true isolationists, was reluctant to deploy forces in foreign engagements. However, faced with the demanding security of our merchant fleet and the growing concerns regarding our fragile economy, Jefferson had no choice but to protect the free flow of commerce and deploy the Navy.



20



## Fleet Locations



미국의 해군은 지구 5대양 전역을 관할지역으로 삼아 세계의 자유 무역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자유무역은 **해로의 안전**이 필수.  
미국해군은 2014년 현재 세계 2-14위 해군을 합친 것 만큼 강하다

21





**U.S. climbs to third in ranking of world's most competitive economies** U.S. flags fly above a row of vehicles at the Rod Baker Ford dealership in Plainfield, Ill., on July 23. (Daniel Acker, Bloomberg) Yahooonews.com 2014.9.4.

에너지 혁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봄을 이루고 있다. 2014년 3 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5% 였다. 미국 국민들은 2014년 Christmas 선물 구입비를 2013년 보다 6 % 더 지출 했다. 22



미국은 최근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 연필과 스카치 테이프에 미국에서 만들었음을 알리는 Made in the USA. 가 큰 글자로 쓰여져 있고 성조기 그림도 그려져 있다.



23



지금 미국은 석유 저장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석유가 넘쳐나고 있다.

This March 13, 2012 photo shows older and newly constructed 250,000 barrel capacity oil storage tanks at the SemCrude tank farm north of Cushing, Okla. For the past seven weeks,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oducing and importing an average of 1 million more barrels of oil every day than it is consuming. That extra crude is flowing into storage tanks, especially at the country's main trading hub in Cushing, pushing U.S. supplies to their highest point in at least 80 years, the Energy Department reported Wednesday, Feb. 25, 2015. (AP Photo/Tulsa World, Michael Wyke)

24



## 미국이 석유를 자급하게 된다면?

지난 30년 동안처럼 7조 30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쓰지 않아도 될 것이며...(년 2400억 달러)

미국은 이미 하루에 석유생산국에 보내던 돈 4억 달러를 절감하고 있고... (년 1500억 달러)

미국에 맞장 뜨는 베네주엘라, 세계 최악의 부정부패국가 나이지리아 석유(미국이 그동안 상당량 수입 a kind of oil curse country) 를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석유가 자급되는 미국은 과거 불가피하게 연계 되었던 개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종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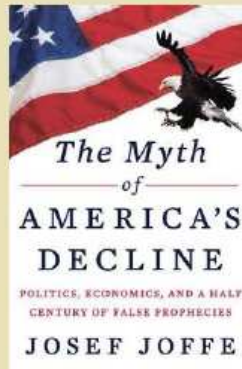
미국이 에너지를 독립하게 되면 미국은 **년 3,000억 달러- 4,000억 달러 석유수입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대폭 개선 될 것이다. 미국 은행에 돈이 싸이게 될 것이고 대출 금리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3,000-4,000 억 달러란 월 마트 수준의 경제력이다. 200만개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다시 미국의 경기는 회복 될 것이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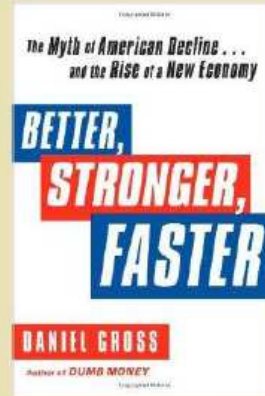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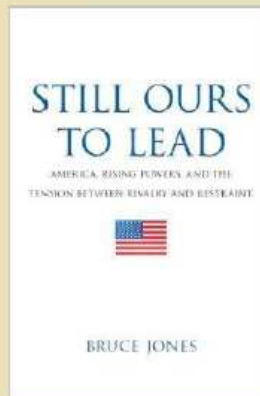




Myth Of Decline: U.S. Is Stronger and Faster Than Anywhere Else



미국의 지속적  
우위를 주장하는  
최근의 책들



16



미국 경제는 새해에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유럽·일본은 침체가 이어지고,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미국은 나 홀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주인공 자리에 프랑스 여성 대신 미국 자유의 여신상이 자리 잡고 성조기를 휘날리고 있다. /그래픽=이철원 기자 chosun.com 2015.1.1.

27





We are 15 years into this new century. Fifteen years that dawned with terror touching our shores; that unfolded with a new generation fighting two long and costly wars;

that saw a vicious recession spread across our nation and the world. It has been, and still is, a hard time for many. But tonight, we turn the page. Tonight, after a breakthrough year for America, our economy is growing and creating jobs at the fastest pace since 1999. (Applause.) Our unemployment rate is now lower than it wa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More of our kids are graduating than ever before. More of our people are insured than ever before. (Applause.) And we are as free from the grip of foreign oil as we've been in almost 30 years. (Applause.)

2015.1.20 2015 State of the Union Address

대단히 낙관적인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연두 연설

28



## 오바마 “中 아닌 美가 무역질서 새로 써야” ‘TPP로 무역 주도권 확보’ 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며 중국에 무역 패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주레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 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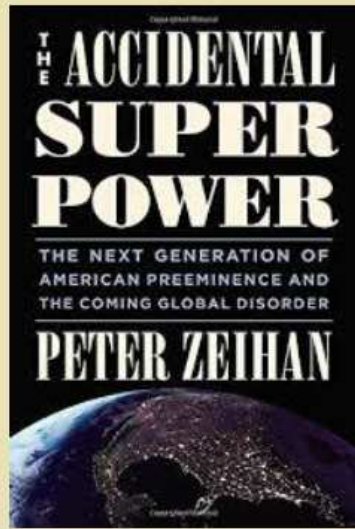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2015.2.23.

미국의 국제무역 의존도: 21%

중국의 국제무역 의존도: 50% 이상



29



2014년 11월 하순 간행 된 이 책에서 저자 Peter Zeihan은 미국은 더 이상 세계문제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세계 정치는 마치 1, 2차 대전 이전의 국제정치를 닮게 될 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2040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나라(선진국 중)는 미국뿐 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정학+인구통계학 으로 이미 1등인 미국은 Shale Oil과 Gas 로 인해 거의 영원한 1등의 지위를 확정 했다고 주장.<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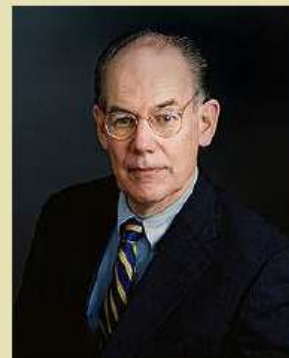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 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John J. Mearsheimer, 이준근(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출판,2004) 한국어판 序文



31





앞으로 세계에 석유를 수출해야 할 미국에게 중동은 무엇인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할 미국에게 러시아는 무엇인가?  
 미국 해군이 중동의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바다의 안보, 석유해로의  
 안보는 누가 책임 져야 하는가? 한국, 일본 중국의 상선들은 누구를 믿고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녀야 하는가?



중국 석유의 47%, 미국 석유의 10% 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32



미국은 중동의 석유 수송로를 항상 열어두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약 8조 달러의 군사비를 중동에 쳐 박았다. 8조 달러는 중국의 1년  
 GDP 에 해당하는 돈이다. 미국은 중동에 2003년 이래 항상 두 개의  
 항공모함 전투 단을 상시 중동지역에 배치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항공모함을 전면 철수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의 역할은 과거와는 정반대의 일이 될 수도 있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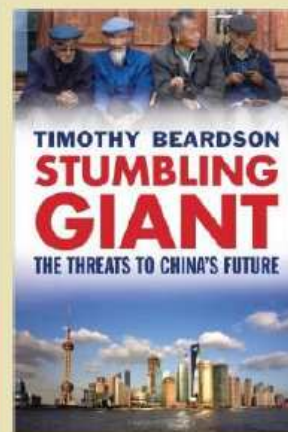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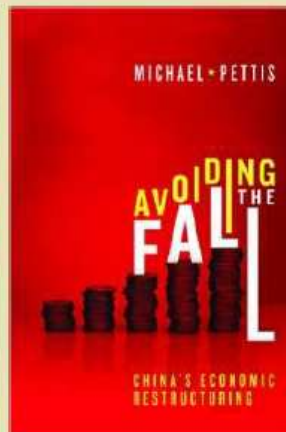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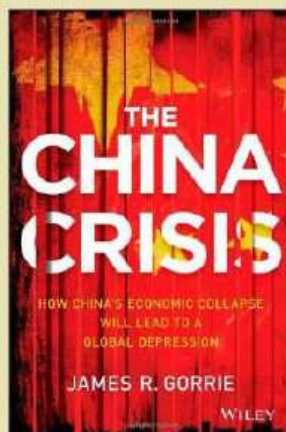
## Why the Dollar Is Still King.

The dollar, left for dead only a short while ago, is on a roll, and it looks unstoppable for the foreseeable

future. [Milton Ezrati](#) February 24, 2015

*The National Interest.*

34



중국 경제가 일반 적으로 믿어지는 바와 전혀 달리, 심지어 몰락할 수 도 있다는 경고가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간행된 중국의 몰락을 경고하는 책들

35



## China Is Poorer Than It Appears

Recent IMF report naming China as world's number one economy misleading By He Qinglian | November 1, 2014

“ ”

In China 468 million people spend less than US\$2 per day

“ ”

This economic system that depen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means of production and means of subsistence is extremely weak

“ ”

The Chinese government would do well to change its bad habit of falsifying statistical data

36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복잡한 관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만화

37





미국과 중국은 국토 면적이 거의 비슷하지만 육지 국경선 면적은 중국이 훨씬 길다. 즉 방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과 육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 뿐이다.

반면 중국은 14개 국과 육지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과 양호한 정치적,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8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극도로 불리하다. 14개 국가들과 접경해 있으며 이들 중 러시아, 인디아, 베트남 심지어 북한과의 국경도 안전하지 않다. 바다를 통해 일본과 마주하고 있으며 미국 함대는 중국의 영해 바로 밖에 주둔하고 있다.

39



40



41





중국은 地政學 的으로 미국과 태생적으로 경쟁 할 수 없는 나라다

중국의 국경 길이: 22,117Km

미국의 국경 길이: 12,034 Km

즉 비슷한 넓이의 미국보다 국경이 1.84배나 더 길다  
국경의 성격은 더욱 불리하다

미국은 우호국(약소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 단 두 나라와 접경

중국은

라이벌 러시아와 3,605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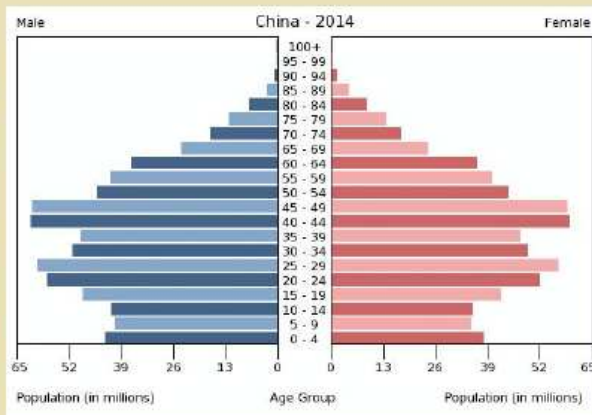
숙적 인디아와 3,380 Km

숙적 베트남과 1,281 Km 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11개국 모두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은 중국의 영원한 Bogymen(귀신, 부기 맨) 인 일본과 근접 해 있다.

- 중국의 진정한 발전은 일본의 위협이 제거 된 이후( 1945년 이후 미국에 의한) 부터 였다.

42



Age structure: 0-14 years: 17.1% (male 124,340,516/female 107,287,324)  
15-24 years: 14.7% (male 105,763,058/female 93,903,845)  
25-54 years: 47.2% (male 327,130,324/female 313,029,536)  
55-64 years: 11.3% (male 77,751,100/female 75,737,968)  
65 years and over: 9.6% (male 62,646,075/female 68,102,830)  
(2014 est.)

중국의 人口 統計學  
(demographic) 적 파탄은  
현재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파탄과 고뇌 옆의 도표.

현대국가 국력 평가의 두 번째 기준인 인구통계학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고, 양질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모든 산업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파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다.

43



중국 60세 이상 인구 2000년 10.3% / 2010년 13.3 % 2010년 16세 이하 16.6 %/ 2000년 에는 23 % 였다. (165 D. Gross)

**중국의 노동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support를 받아야 하고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다. 중국은 곧 오늘의 일본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165) 인구 13억이 넘는 나라의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것은 bizarre 한 일이지만 현실. 중국의 facility rate 1.5/ replacement rate 2.1 이하/

현재 중국의 인건비는 미국의 생산성을 고려 할 경우 미국 인건비 낮은 주보다 55% 정도 낮은 수준. 중국의 현재 인건비 증가율을 고려 할 경우 2015년에는 39 % 정도 싼 가격. (166 D.Gross) (BCG Report: Made in America, Again: Why Manufacturing will return to the US: 이보고서는 2011년 8월 "앞으로 5년 이내에 중국 해안가 도시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은 미국의 사우스 캐롤리나, 알라바마, 테네시 주 등에서 건설될 예정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불과 10-15 % 정도 밖에 싸지 않을 것이다" 고 선언 했다. (DG. 167)

44



지난해 12월 중순 미 시카고에서 열린 미·중 통상무역합동위원회(JCCT)에 참석한 왕양(汪洋) 부총리는 **"세계를 주도하는 건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다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미국의 주도적 위치를 존중한다"**고 천명했다. 새해 들어선 중국 유명 학자들의 엄호 사격이 이어졌다. 진찬룽(金燦榮)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지난달 10일 중국은 계속 낮은 자세의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이틀 뒤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나서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친야칭(秦亞青) 외교학원 원장은 중국의 외교가 강경하게 변했다는 말이 있지만 중국은 기존 외교 전략을 2050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략'은 덩의 도광양회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앙일보 2015.2.26.

45





중국은 왜 갑자기 도광양회로 돌아서는 것일까.  
국제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경기만 회복되면 중국  
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한다. 중국은 국력이 충분히 신장되면  
미국을 제칠 수 있다고 본다.

**한데 최근 미국의 경기 회복이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3%대 성장률을 구  
가하면서 실업률을 5%대로 떨어뜨렸다. 특히 미국이 양산하는  
**세일 가스**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석유 수출을  
무기로 미국에 큰소리를 쳐왔던 러시아와 이란·베네수엘라 경제  
를 모두 주저앉히는 위력을 발휘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중국의  
주요 파트너다. **중국이 위기감을 갖게 된 건 당연하다.**

**중국은 이에 재빨리 미국과의 대결 자세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돌  
아섰다. 조용히 힘을 기르자는 덩의 도광양회 전략을 다시 계승  
하려는 것이다.**

46



중국은 2003년 후진타오 시대 이래 '**화평굴기**'를 대외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내걸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한다'는 '**주동작위**(主  
動作爲)'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했으나 그것도 잠깐이  
었다. **세계의 분위기가 '미국 부활, 중국 감속(減速)'으  
로 바뀌자 '화평굴기'를 다시 전면에 세웠다.**

미국·유럽·일본은 '화평굴기'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부  
터 '평화롭게 일어서고 난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국에 묻고 그에 대비한 전략도 함께 구상했다. 그들  
은 중국 이야기를 그대로 곧이듣는 한국더러 '**순진하  
다**'고 했다. '**순진하다**'는 말을 뒤집으면 '**어리석다**'는  
뜻이다. 일본 아베 정권 인사들의 망언(妄言)에는 그런  
느낌이 묻어난다.

미군은 6·25전쟁에서 국군과 어깨동무하며 중국·북한  
군과 맞서 싸웠다. 전사(戰死) 3만694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이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런 동맹국 미국의 말은 씹고 되씹으  
며 미국의 숨은 뜻, 감춰진 국익(國益)을 캐내려 하는  
한국이 중국의 이야기는 두드려보지도 않고 덩석 삼키  
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성인  
군자(聖人君子)의 나라다.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  
건은 그래서 더 등골이 서늘하다. 대사 본인은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지만 비 왔다고 저절로 땅이 굳  
어지는 건 아니다.



강천석 논설고문  
2015.3.14.  
조선일보

북한 核 폐기와  
사드(THAAD)  
문제... 함께 묶  
어 대응해야 한  
국 정부 '전략적  
모호성'은 '無  
전략적 혼돈'일  
뿐

47



## 한국의 국가 전략

**Balancer...**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국제정치의 예리한 감각이 절대 필요  
미국의 대 전략  
한국의 전략 선택

48



이준근 저  
미 중 패권경쟁과 한국  
의 전략적 선택

2013년 1월 출간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http://www.keri.org) 에 들어  
가셔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책이 필요한 분들  
은 연구소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49





대한민국의 언론보도는 대체로 중국을 실제보다 대단히 과장하고 있는 편이다. 중국이 마치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앞서는 듯 호도했다.



중 첫 황모, 시형 황모-70년 광무은 '大洋海軍' 첫날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구소련서 가져온 항모 개조 5일간 항해금지구역 선포 핵추진 항모 2척 더 전조중  
"중국, 21세기 중반까지 전세계 아우를 해군력 확보"

## 중국 첫 항공모함

[illegible]

한국 투자 개발	비즈니스 Type
미국 여행 정보 (K) (K)	건설/공사

서: 1000V 500mA 1000mA 1000mA  
1000V 1000mA 1000mA 1000mA

**도출 결과** 1992년 4월 25일 4.20세 (간호 중아)의  
부유층과 빈곤 계층 2명의 하리그를 20% 간격 19명  
은 1992에서 1993년까지 1년으로 10명(4월 25일)의 범위

간접 및  
분류 비용

[illegible]

### 행기 이착륙 기술 어려워

2. 와 협력해 中 경제



영역(가)에 포함된 모든 점의 집합은  $\{(x, y) \mid x^2 + y^2 \leq 1\}$ 이다.

---

- 26 -

구식 우크라이나 제  
항공모함 한 척을  
거의 10년간 수리해서  
진수식을 한 것을'보고  
"찬란한 태양이 떠  
올랐다"고 말하는  
한국 언론.

이들은 미국이 마하 20 (시속 20,000 Km) 속도를 내는 폭격기 실험에 2회 실패한 것을 "미국의 굴욕" 이라고 표현 한다.

中 항모, 실전 투입까진 최소 10년... 비행기 이착륙 기술 어려워  
 (佛도 전투의 발화에 10년 걸려)

日 “핵무장 필요”... 베트남은 인도와 협력해 中 견제

中과 영토갈등 벌이는 두 나라  
해군력 강화 등 공세적 대응



본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시진핑 6-25 참전은 침략 에 맞선 정의

" 2010.10.25.chosun.com

▲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연합뉴스中 '항미 원조전쟁' 60주년 좌담회 개최  
최근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되면서 차기 국가주석이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부주석은 25일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군 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 전쟁(抗美援朝戰爭)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밝혔다.



52



## 中 시진핑, 北 김정은에 '제1위원장 재 추대 축하' 축전 보내

2014.04.13. chosun.com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 추대를 축하하는 꽃바구니와 축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했다. (2014.4.13)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1일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며 "나는 형제적 조선 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세계 주요국 중, 김정은의 재 추대를 축하해 준 나라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

53





## 미국과 중국의 미래

“특히 그간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마치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覇權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보장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覇權國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挑戰國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경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John J. Mearsheimer, 이준근(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  
판, 2004) 한국어판 序文



54



역사상 패권 국이 도전 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결코 평화적으로 굴복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도전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저지하려는 작업을 진행 시키고 있다.



Dr. Edward N. Luttwak



55



## 미국이 인식하는 세계: 미국의 전통적 외교전략

유럽에서의 패권 국, 아시아에서의 패권 국 출현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 불변의 대원칙 (Grand Strategy) 이었다. 지정학에 근거한 사고



56



## 반 테러전쟁과 패권전략을 병행하는 미국



국제관계의 기초는 **경쟁/두려움**이다. 지리적으로 중국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두려운 중국 주변국들 모두가 미국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이미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인도와의 탁월한 우호관계, 몽고와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다. 최근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도 미국은 우호관계를 재개 하고 있다.

57





**[동아시아 칼럼] 중국은 울고, 북한은 웃고 있다**  
 차오위즈(趙禹智) 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소 주임  
 입력 : 2007.07.20 22:56 / 수정 : 2007.07.20 23:07

내 계산으로는 누구보다도 제일 큰 손해를 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북핵 게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미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책을 했다.

...그런 북한에 중국은 핵개발의 명분을 주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해서 동북아 유일의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우위도 동시에 상실하면서, 북한 인근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개 성에 사는 3억 인구를 북한 핵무기의 위험 아래 놓이게 만들고 말았다.

.... 그런데 북핵 위기를 통해 북한은 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험에서도 탈출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58



**Obama: India deserves permanent seat on U.N. Security Council.**  
 Nov.8.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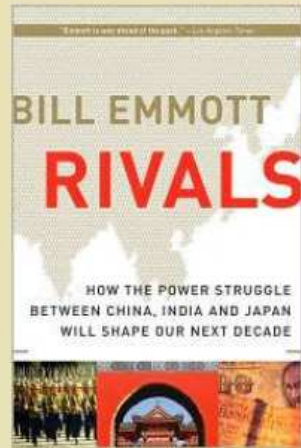
2010년 11월 8일 오바마는 인도 방문 중 인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있다고 언급, 중국을 분노케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 장관  
 은 2010년 11월 9일 호주와의 동맹을 강화 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언급



2010년 11월 8일 미국 국방 장관 Robert Gates는 향후 아시아 주둔 미 국군을 대폭 증강시키겠다고 언급했다.

59



2008년 간행된 Economist 지 편집장 이었던 Bill Emmott의 저서.

Emmott는 이 책에서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라 3개의 강대국이 상호 경쟁하며 라이벌 관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한다.

아시아는 유럽처럼 경제적으로 하나로 통합 되기 어려운 지역이며 정치적으로는 더욱 어렵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갈등적인 역사를 볼 때 특히 그렇다.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을까?

60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안보의 **Linchpin** 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서울 미국 대사관에 걸린 한미동맹 회갑기념현수막  
동맹은 궁극적으로 같은 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하자는 약속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나라, 공통의 적이 없으면 동맹도 없다

61





US-Korea Global Partners 한국과 미국 세계 속으로 함께 갑니다.  
2014.3.2. 촬영

62



한미정상 회담, 2013.5.7. 양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 시키기로 약속했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대응을 천명했다. 북한이 먼저 변할 것을 주문했다. 2014.4.25-26. 오바마 대통령 서울 방문,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나 북한은 이를 N Korea calls US-S Korea summit  
**prelude to war** 라며 비난 했다. 2013.5.10. AP 통신.

63



한반도의 지정학: 한국은 국제정치에 의해 운명이 규정되는 나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안보를 극복하면 **통일 강대국의 희망이 보인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1-4위 의 강대국이 모두 모여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 냉전의 첨단지역으로 국제정치의 핵심지역이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의 꿈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해양세력 이라면 중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반대로 통일이한국이 대륙세력 이라면 일본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인식되고 있다.

64



중국은 한국의 **自主的** 평화통일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북한이 수 십 년 동안 주장했던 통일 방안이 자주적 통일이었다. 중국이 의미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2014.3.25.조선일보

65





## 北·中 급속 해빙... '정상회담 추진' 이어 北 관광 재개 中 '對韓 정책' 변화여부 주목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의 처형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 러브콜을 보내며 고의로 중국을 외면하고 비난했던 북한으로서도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언제까지나 등을 돌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 완화는 관계 개선에 명분이 될 수 있다.  
문화일보 2015.3.10.

## 中, 對北 원조재개·관계개선 방침 세운 듯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지방 정부가 지원 주도' 등 對北 3가지 방침 정해  
전문가들 "北·中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한 것은 韓·美 동시견제 의도인 듯"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북·중 관계와 관련해 '관계개선(關係改善)' '원조재개(援助重啓)' '지방위주(地方爲主)' 등 3가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chosun.com 2015.03.10 03:00

\* 중국은 構造的으로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과 거래를 들 수 없다.

66



## 통일의 교훈: 독일로부터 배운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경제력,  
그리고 서독인의 단결력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 세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 박성조, 한반도 붕괴:위기의 남북관계 그 새로운 전략과 해법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6), p. 12.

67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협의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필요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각서에 양측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2. 전작권 전환 후 두 나라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지속적 지원,
- 그리고 3. 국지 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환 시기와 관련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국가의 자존심 혹은 주권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사령관에게 부여하는 최종 결정권은 한국 대통령이 행사한다.

Voice of America 2014.10.25.

68



## 중국과 너무 가까운 게 문제인 한국:

강인선 국제부장  
이 메일insun@chosun.com  
2012.09.11 23:30



중국 '미국과 거리 두는 한국' 원해  
美선 '對中 연합 한국 제외'論,  
몸값 높이거나 왕따 될 상황...

중국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을 믿지 못하고, 한국은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한국'을 원했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개입 없이 이뤄진다면 기꺼이 지지"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은 파트너 십을 중시한다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은근히 이간질도 했다.

중국이야 그렇다 치고, 요즘 미국에선 아시아에서 대(對)중국 연합 세력을 규합할 때 한국은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한국은 빼놓고 호주·일본·필리핀·베트남·미얀마·인도 등과 동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중국<월남+일본+인도 (인구, 경제, 군사력)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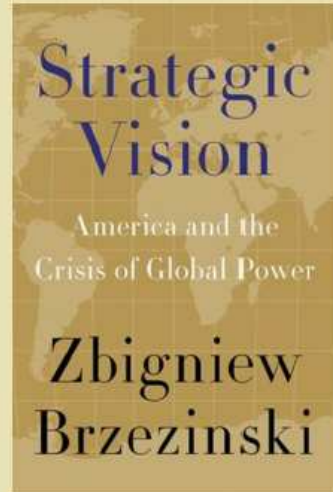


—2012년 초 펴낸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에서 미국의 쇠퇴로 한국에게 힘든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한국 정부의 안보자문을 맡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나.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3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이 가장 낫다고 본다.**

**한일 협력이**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2.8.7.



1928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  
1953 미국 하버드대 박사  
1977~81 지미 카터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  
Johns Hopkins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

70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외교적 수사학을 되풀이하다가 난데없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의 정치적 지축을 흔들어댄다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전략적 행위에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동맹국 미국의 대체 국이 될 수 없다.**

세계 외교사에서 빛나는 최고의 전략가 비스마르크는 5대 강대국 사이에선 항상 '3의 모임'에 속하는 것이 낫다고 충언했다.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한국의 모든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외교 전략이 군사적 동맹의 국가 방위 전략과 크게 엇나간다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자멸(自滅)의 길을 택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중국이 불쑥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해 올 경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준비를 미리 치밀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

2014. 12.3.  
조선일보 기고문

71





사드 THAAD 배치는 이제 단순한 무기 체제 문제가 아니라 미·중 등 주변 강국 사이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과 국가 대 전략을 가늠하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 민간 안보 싱크 탱크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한 저명한 원로 국제정치학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중국도 미국과 일본에서 멀어지는 한국을 더 이상 대등한 외교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한국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고 미·중 양대 강국 사이에서 오판과 실기(失機)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02.18 03:00 조선닷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국민의 63%가 사드 도입 찬성**하고, 중국 눈치 볼 필요 없다는데도 현정부는 여전히 눈치 본다. 별 실익도 없는 한중FTA랑, 세계적인 끝물인 중국진출 위주정책은 버려야 한다. 든든한 안보 속에 경제 살리지 않으면, 골병 타임 된다." Netizen 정기철

72



—한·중 수교가 만 23년을 맞았다. 대(對)중국 교역량은 미국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한·중 관계 비중을 한·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변함이 없을 거다. 중국과 일본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 내부에서 자꾸 한·중 관계를 말하는데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 관계도 오래됐고 문화적 공유점도 많지만 이념 등 다른 점이 아직 많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고 어떤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려 한다. 한·중 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6년5개월 최 장수 대사 김하중 前 통일부 장관. 2015.03.14 조선일보



73





**李春根**

연세대학교 정외과, 동 대학원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졸업(정치학박사)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 박사과정 수료

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조빙연구위원

저,역서: 북한 핵의 문제 (著 1995)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譯, 2004)

새로운 제국 중국(譯, 2005)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著, 2007.1.8)

21세기 국제자원쟁탈전(譯, 2008.12)

군인과 국가 (공譯 2010)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공저 2011)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저, 2012)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저, 2012)

미중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저, 2012)

격랑의 바다: 아시아 국가들의 해양전략(역, 2014)

등 17 권 저서 및 역서 간행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강의 파일은 2015년 3월 18 일 민주정책포럼-강의자료로 준비된 것입니다.

본 강의에 인용된 자료는 모두 공개된 자료(학술서적, 신문, 방송 뉴스, 논문, 잡지  
및 internet source) 들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15일 PM 최종 수정)

<http://blog.naver.com/choonkunlee>